

# 산불·가뭄·폭염·홍수... '잔인한 여름' 끝날 줄 모른다

## 미주대륙 곳곳 물난리

### “허리케인·기후변화 관련성 뚜렷”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 산불 지속 가뭄 120년전의 5배 빈발

올 여름 곳곳에서 산불과 가뭄, 폭염,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촉발한 기상 이상 현상이 점점 더 자주, 강도 높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테네시주 중부 헴프리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17인치(431.8mm) 이상의 비가 카운티 맥켄 지역에서 측정됐다. 이는 테네시주에서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또한 허리케인 ‘헨리’가 뉴욕에 비를 몰고 오면서 이날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는 4.45인치(약 113

mm)의 강수량으로 이 지역 하루 강수량 신기록을 세웠다. 멕시코에서는 같은 날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동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폭우가 쏟아져 베라크루스주 22곳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주도 할라파 시에서만 최소 7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허리케인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구가 더 따뜻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점점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비를 뿌리는 허리케인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후 분석기관 ‘기후서비스’의 선임 연구원 짐 코신은 CNN 방송에 “지구온난화가 열대성 사이클론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풍속 강도를 높인다는 확신이 있다”며 “이는 다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 수백 명 사망자를 낸 대홍수도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폭염과 산불, 가뭄 등 다른 열골의 기상 이상 현상도 세계 각지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지난 11일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치솟았고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등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장기간 계속됐다.

러시아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수백 건의 대형



열대성 폭풍 ‘헨리’가 몰고 온 폭우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헬메타의 한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헨리는 이날 미 동북부에 상륙한 뒤에도 많은 비를 뿌려 곳곳에서 홍수와 정전사태를 빚었다. /연합뉴스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터키의 보르도에서 29일(현지시간) 산불이 발생해 주거지를 위협하고 있다. 지중해의 휴양지 마나브가트에서는 산불로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산불이 나면서 최근까지 1400만ha 이상이 소실됐으며 산불로 뿔어져 나온 막대한 양의 연기가 바람을 타고 3000km 이상 떨어진 북극까지 사상 처음으로 도달했다.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와 튀니지에서도 이상 고온 속에 산불이 여러 날 이어졌다.

그에 앞서 지난달 캐나다와 미국 서부 지역은 열돔 현상에 따른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충격

을 겪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 서부 지역은 몇 달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7월 지구 표면 온도가 20세기 평균인 섭씨 15.8도보다 0.93도 높은 16.73도를 기록해 7월 지구 표면온도(지표면+해수면)로는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최고치였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온난화로 치명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폭염이 1900년 이전보다 5배 더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아지면 그 빈도는 14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탈레반, 저항세력 진압작전 돌입...아프간 내전 치닫나

### 반탈레반 북부 3개주 거점 반격 저항군 지도자 “유혈사태 경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공포 통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아프간 북부 일부 지역에서 반(反)탈레반 저항세력이 결사 항전을 선언하며 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드(32)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알아라비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련에 맞섰으며 탈레반에도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여러 지역으로부터 정부군이 판지시르에 집결한 상황”이라며 “탈레반이 현재 노선을 고수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간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유혈사태를 경고한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군은 현재 아프간 북부 판지시르와 파르완, 바글란 등 3개 주를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한 상태다.

특히 카불 북부 판지시르 계곡에는 반(反)탈레반 항전 세력이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 함락 이후 판지시르에는 수천 명의 반대파가 운집했고, 마수드 휘하에만 9천 명이 집결한 상태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한 압둘라 살레 제1부통령, 야신 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일반 군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 새 정부 구성 협상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탈환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간부 아나스 하카니(가운데 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카불에서 하미드 카르자이(가운데 왼쪽) 전 대통령, 압둘라 압둘라(오른쪽 두 번째) 국가회해최고위원회 의장 등 아프간 전 정부 측 인사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수드는 아프간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이다.

아흐마드 샤 마수드는 1979~1989년 아프간을 점령한 소련에 맞선 반군을 이끈 사령관이다. 소련 철수 후 국방장관에 오른 그는 1996~2001년 탈레반 집권 시기 탈레반에 저항했고, 2001년 결국 암살됐다.

저항군은 탈레반에 포괄적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탈레반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마수드는 로이터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탈레반이 협상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우리는 내전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자신의 지지자들은 진압에 나선 탈레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체주의 정권’이 국제사회에 인정되는 안 된다면서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1주일새 16만명

### “검사 부족...실제는 더 많을 것”

일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16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감염된 이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검사 능력이 부족해 감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각관방의 집계에 의하면 이달 19일 기준 직전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도쿄도(東京都)가 23.3%, 가나가와(神奈川県)현이 34.8%를 기록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전국 평균은 16.4%였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양성률

이 10% 이상인 경우 감염이 가장 심각한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양성률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감염된 이들이 급증해 검사 수가 감염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양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20일 열린 도쿄도의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5만7532명(NHK 집계) 증가했다.

양성률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검사 부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미얀마 군정, 저항세력 공세 강화에 ‘상시 전투태세’ 돌입

미얀마 군사정부가 저항세력의 공세가 거세지자 각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상시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23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최고 사령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지침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반군부’ 무장투쟁 세력의 공격에 의해 정부군측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라와디가 입수한 지침에는 모든 부대가 상시적으로 전투 태세를 유지하라고 돼있다.

또 각 부대는 검문소를 확대하고 주거 지역에서 불시 검문 횡수를 늘리라고 적혀있다.

최근 미얀마 곳곳에서는 반군부 저항세력이 미안마군과 경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최대 도시인 양곤의 열차에서 경찰관 4명이 신원미상의 괴한이 손총에 맞아 숨졌다.

또 북부의 공군 기지가 공격을 맞아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미얀마군과 경찰에 대한 일련의 공격은 대개 군부에 맞서 조직된 지역별 시민방위군(PDF)이 감행한 것이라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연합뉴스

#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